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黃 炳 俊

21세기 제주도 선교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실천신학과

김 견 수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C. 연구사 .....	4
II. 선교의 배경적 고찰 .....	8
A. 선교의 성서적 배경 .....	10
B. 선교의 역사적 이해 .....	17
C. 선교의 현대 신학적 고찰 .....	32
III. 제주도 선교의 역사와 의미 .....	41
A. 제주도 선교의 시작 .....	41
B. 해방이후 제주도 선교의 변화 .....	45
C. 제주도 선교의 중요성 .....	51
IV. 제주도 선교의 문화적 배경과 선교현황 .....	53
A. 제주도의 고유정서와 친족의식 .....	53
B. 제주도의 민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	56
C. 제주도의 선교현황 및 문제점 .....	62
V. 제주도 선교의 전략 및 전망 .....	71
A. 문화변혁의 선교 전략과 전망 .....	71
B. 이분법적 복음에서 통합적 복음전략 .....	74

C. 탈 현시적 영성에서 조화적 실천영성 ..... 77

VI. 결론 ..... 82

    A. 요약 ..... 82

    B. 제언 ..... 84

참고문헌 ..... 87

ABSTRACT ..... 94



## 표 목차

<표 1> 1908년부터 1942년까지 제주교세 통계 ..... 44

<표 2> 제주의 종교별 교세 현황 ..... 63

<표 3> 한국 교회의 문제점 ..... 68



# I. 서 론

## A.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그동안 세계선교에 크게 영향을 미쳐온 한국교회에는 선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첨단 개방지역이며, 국제화의 목표를 지닌 미래지향적 섬인 제주도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선교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제주도 선교의 문화적 배경과 선교현황을 근거로 21세기의 제주도 선교전략 및 선교전망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제주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 지향적 첨단 개방지역이다. 그러나 문화적, 특히 종교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한국의 어느 지역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배타성’과 ‘토속성’을 지니고 있다.<sup>1</sup>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해 독노회에서 제주선교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 1월 파송예배를 드리고 서울과 목포를 거쳐 4월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2008년으로 제주 선교는 100주년을 맞았다.<sup>2</sup> 현재 100년이 넘는 제주도선교의 역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으나 기독교 교세는 육지에 비해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약한 교세의 원인과 제주 선교의 장애요인을 일부 기독교 전도자들은 제주도에서 신봉되는 다수의 토착신, 독특한 생활풍속, 무속적 생활체질, 조상숭배 등을 들었고, 또한 기독교회에 대한 배타적 기피현상, 기독교 전도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등을 들고 있다.

<sup>1</sup>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호, 2000), 173-192.

<sup>2</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204-241.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 제주도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교세가 적은 만큼 선교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 선교의 중요성은 이미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제주도선교 100주년을 맞아 제주도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기독교내에서도 다시금 조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 선교의 근본적 문제점과 전략 및 전망을 연구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미약한 제주의 교세를 부흥시키고 제주도민의 복음화를 이루어 제주도가 기독교 선교의 전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보다 정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설정하여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한다. 선교사역은 성경의 관점과 교회의 과거 역사와 급변하는 세상의 상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요 세상을 향한 행위이므로 선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교의 근본적 의미 고찰을 통해 제주 선교의 목표를 되새겨보고 제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제주선교의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현재 제주도 선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제주가 한국교회 선교역사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게 하고자 제주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선교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선교에서의 문제점은 근래 들어 고착상태에 빠진 한국기독교계 전반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은 한국기독교계에서 참고로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현대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도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재정립한다. 둘째, 제주도의 고유정서와 친족의식, 민속신앙과 기독교신앙을 배

경으로 현재 제주도의 선교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향후 성공적인 제주도 선교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한다.

##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주의 고유정서와 민속신앙 등의 제주도 선교의 문화적 배경, 제주 선교의 역사 및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 선교에 적합한 전략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자료 및 선행연구 논문, 제주 선교 및 문화와 관련되어 발간된 문헌,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와 목적과 연구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를 밝힌 다음 본 연구와 성격을 같이하는 선행 연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제주도 선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교의 성서적 배경, 선교의 역사적 이해, 선교의 현대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다.

제 III 장에서는 제주도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 보고자한다. 제주도에의 선교가 시작된 이후 제주도 선교의 변화상과 함께 제주도 선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제주도 선교의 배경적 이해와 제주도 선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고유정서와 친족의식 및 민속신앙에 대해 파악하여 제주도 선교활동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현재 제주도의 선교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V 장에서는 앞장에서 파악한 제주도 선교의 배경 및 현황,

문제점을 토대로 21세기 제주도에서 성공적 선교를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 선교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 VI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주도 선교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략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제주도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C. 연구사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고, 기독교 역사 중 제주도는 복음화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제주 선교 역사를 통해 제주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제주 선교 100년을 맞아 기독교내에서 제주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조망되면서 제주 선교의 역사에 대한 재정리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주선교를 위한 전략 및 전망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현재까지 제주선교에 대한 논문의 흐름은 거의 동일하였다. 먼저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후 제주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 선교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선교진행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의 모든 연구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 보다는 이미 지난 제주 선교를 돌아보면서 성경과 선교신학을 통해 21세기의 선교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유승남은 1999년 제주선교 90년을 맞아 전국 평균수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제주복음화율과 제주선교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러한 제주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21세기의 제주선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sup>3</sup> 그는 특히 천주교의 제주 전래와 신축성 교란과 신성학교 편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21세기의 바람직한 선교 비전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21세기의 제주교회의 선교전략을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상황화, 성령 충만한 교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의 실현이라 결론지었다. 이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교회중심주의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민수(2002) 역시 유승남(1999)과 마찬가지로 선교의 이해와 제주역사를 살펴보고 제주선교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역시 제주선교의 문제점으로 종교 문화적 배경과 가족제도, 샤머니즘을 다루고, 향후 제주선교 방향으로 농촌선교와 문화선교,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복지 선교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주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서에 나타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령의 치유역사가 제주선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이 제주에 맞도록 전해지는 상황화를 역시 논하였으며, 연합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용규(2008)는 제주선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sup>3</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하였다.<sup>4</sup> 그는 첫 해외선교지로서 제주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1세기의 제주선교 역사를 이기풍 선교사 파송이후(1908-1945년), 해방 후 제주선교(1945-2008)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주선교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으며, 앞으로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선교사적 조명에 더 많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 기독교 역사는 제주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제주 선교 100년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역사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제주에는 선교적 잠재력이 많으므로 교파를 초월하여 전체 교회들이 연합하여 제주선교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더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므로 제주 교계는 제주선교 100주년을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 관습의 문화적 차이와 같은 선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출신 목회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서정민(2000) 역시 제주선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는 특히 제주도 기독교 교회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기독교 선교 이전 가톨릭사와 가톨릭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그 이후 전개된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제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sup>5</sup>

박인찬(2003)은 상기 연구들과는 달리 제주도에서 사역한 최초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 고찰하였다.<sup>6</sup> 그의 출생과 가정환경, 목사임직, 제주도 파송, 제주도 입도과정, 제주도 초기 사역, 제주도 선교확장, 제주교회의 부흥, 제주선교 위임과 새

<sup>4</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세미나, 2008), 204-241.

<sup>5</sup>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2.

<sup>6</sup>박인찬,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선교대학원, 2003).

로운 사역, 순교에 이르기까지를 고찰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리더십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는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선교사역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관계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의 섬김의 리더십, 현지인들을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며 처리해나가는 민주형적인 리더십,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초자연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교단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행정적 영향력, 후임사역자에게의 리더십 이양 등을 고찰하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이기풍선교사의 리더십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제주선교에 대한 연구는 그 양에 있어 극히 드물며, 그 주제와 흐름 역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선교사역은 급변하는 세상의 상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며 세상을 향한 행위이므로 선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 역시 상기 논문들과 유사한 흐름, 즉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 제주 선교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선교진행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 선교 100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선행논문에서 제시된 선교전략의 현재 수행상황 및 현재 제주선교의 상황변화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다시금 21세기 제주선교의 전략과 전망을 모색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성공적 제주선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II. 선교의 배경적 고찰

본 장에서는 선교의 배경적 이해를 선교에 대한 성서적 해석과 선교의 역사적 이해, 그리고 현대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 할 것이다. 존 영(1972)은 ‘선교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으며 자신의 책 “선교의 동기와 목적 (The Motive and Aim of Missions)”에서 다음과 같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7</sup>

선교란 잃어버린 자의 구원과 토착 교회의 설립, 하나님 왕국의 출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완전한 말씀을 모든 나라에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보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의 도처에 퍼져 나가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선교란 용어는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

영국의 존 스토틀(1981)는 현대에 유행하는 다양한 선교개념들이 극단적이라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8</sup>

만일 우리가 세계 속의 기독교적 봉사로서 복음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이 넓은 의미의 선교개념을 수용한다면, 즉 우리 주님의 지상 선교를 모델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관을 가진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 활동과 사회활동으로서 보다 큰 영향, 우리의 수적 능력과 또한 그리스도의 위임과 과격한 요구에 상응

7M. L. John Young, 「선교의 동기와 목적」 권달천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9.

8R. W. John, Stott, 「현대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41.

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밀려가는 선교사역 속에 묻혀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고 세상을 향한 행위이므로 선교에 대한 깊은 논의와 수용 없이 시행하는 선교사역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선교기관과 교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선교에 대한 관점과 교리에 파묻혀 올바른 선교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교회의 사역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자기만족의 틀에 교회를 갇히게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 교회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성장하였지만 반대로 사회적 영향력과 봉사가 약해지게 된 것은 선교에 대한 편중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 선교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무엇이라고 단정 지어 정의내릴 수는 없다. 선교신학이 발달되면서부터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많은 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선교라는 단어는 혼선을 빚어내는 용어가 되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는 전도라는 용어와 함께 혼동 속에 사용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선교는 언제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선교신학의 연구가 따라야 한다.<sup>9</sup>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된 이후 100년이 지났다.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제주도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도의 상황에 맞는 선교활동이 이루어져

<sup>9</sup>석숙미, "21세기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선교 패러다임 -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야 한다.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교에 대한 배경적 고찰을 진행함으로써 오늘날 제주의 상황적 요청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선교이해와 실천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 A. 선교의 성서적 배경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선교는 보편성과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어 선교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나, 각종 율법적인 제사와 의식도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며, 시편의 전체적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확장”<sup>10</sup>이라 요약할 수 있고, 선지서 들은 만방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다.<sup>11</sup>

선교학자 순드클러(Bengt Sundkler)는,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이요, 신약은 원심적”이라고 주장하였다.<sup>12</sup> 그리고 개혁파 리더(Richard R. De Rider)는 구약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약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선교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였다.<sup>13</sup> 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구약사상은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을 인정했으나 인종과 민족적 편견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구약이 의도한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실천으로 옮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다.<sup>14</sup>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갔고, 스스로 소외

<sup>10</sup>박광철, “선교의 성서적 근거,”(미션월드 7권, 11월호, 1991), 47.

<sup>11</sup>*Ibid.*, 48.

<sup>12</sup>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38.

<sup>13</sup>*Ibid.*, 38.

<sup>14</sup> Richard R. Ridder, Discipling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4-5.

의 길을 선택하였다(창 3:8).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창 3:15).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셨으며, 이것이 에덴동산에 선포된 복음이다.<sup>15</sup> 이외 구약성서에서도 선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선교의 성서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 있어 주로 신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주변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위기에 처한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세계만방을 향한 대 위임령이 놓여있다. 이 두절은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옛 백성들과 계속 관계하라고 전하신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신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장절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영원한 복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동심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이방인이라는 더 큰 원의 내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 원에서 하나의 중심부로서의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어떤 구원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 세계적인 선교활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올바르게 수행되어진다.<sup>16</sup>

15E. Roger Hedlund,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24.

16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선교(Mission)는 라틴어 미토(Mitto)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18-20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이 설명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많은 자들이 자신의 문화의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sup>17</sup> 그동안 서구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마 20:18)라는 구절을 강조해왔으며, 행동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서구인들에게 이 해석은 서구 우월적 사고와 만나 지지되어왔다. 반면 ‘제자를 삼아’(마 28:18)라는 구절은 강조되어오지 않았다. 최근의 해석에 의하면, ‘가라’(마 28:18)는 단어는 주된 동사인 ‘제자를 삼아’(마 28:18)라는 단어 앞에 오는 부수적 단어이다. 이는 그동안 서구 교회에 의해 중시되어왔던 지리적 경계선을 넘는 선교의 주된 개념이 제자를 삼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18</sup> 이상과 같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선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제자화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주된 선교적 관점을 나타내는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눅 4:17-21)

2007).

<sup>17</sup>박민수, “제주선교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sup>18</sup>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2007).

여기서의 선교적 관심은 첫째,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다. 이 본문은 예수의 사역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예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잘 드러난다.<sup>19</sup>

두 번째 관심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읽은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사 61:2)이란 구절 직전에서 멈추고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는데 그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회당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원수,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도 되는 원수를 복수하는 말씀을 강조하며 밝히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는 복수에 대한 것은 읽지 않고 은혜에 대한 부분만 읽었다. 바로 이 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용서될 수 없었다.<sup>20</sup>

요한복음은 그 기록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여기서 말하는 단어 “너희로”라는 단어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이는 요한복음이 이방인 복음 전도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위하여 쓰여진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1-“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또 이 우리에게

<sup>19</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63.

<sup>20</sup>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71.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등과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보편적 구원관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그리고 이를 위해 가야 하는 당위성과 보냄이 선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을 분명히 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인 한권의 기록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선교적 특성과 일치한다. 또한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바울 또는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강조이다. 이 점은 마태복음 등에서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다. 성령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탁월한 관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선교사역이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라는 구절을 통해 세계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증인이라는 단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라는 구절과 함께 사도행전의 선교적 관점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또한 이 단어는 사도들에게 국한되어지지 않고 당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고, 이 증인의 개념은 순교자를 암시하기도 한다.<sup>21</sup>

이와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선교관은 성

<sup>21</sup> 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88-189.

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확장에 있다. 이 두 주제는 선교의 목표를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개념과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 나타나는 바울의 선교는 바울이 다양한 여러 지역을 통해 선교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유대 땅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순회전도자는 아니었다. 바울은 중요한 전략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일정기간 머물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를 놓아갔다. 또 이들 전략지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 바울은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여러 번의 목회적 방문과 긴 편지를 통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그들에게 파송함으로써 그 교회들을 양육하려 애쓴다.<sup>22</sup>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바울의 선교 목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들은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야 하며 한 몸의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sup>23</sup>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주된 목표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교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사역은 밀접하게 세상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우주 역사적인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sup>24</sup>

<sup>22</sup> 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10-211.

<sup>23</sup> *Ibid.*, 275.

<sup>24</sup> *ibid.*, 283.

본 장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선교의 관점 및 목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선교의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있지 않다”고 뜻을 박는다. 심지어 영혼구원을 본질로 삼고 있는 선교는 구시대에 속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속한 정복운동으로 간주하며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비신사적 행위로 규정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선교의 본질이 정복운동에 있기보다는 상호 이해에 있으며, 교회설립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 악을 제거하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다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선교를 영혼구원운동으로 옳게 보면서도 영웅주의적인 정복운동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우월한 문화인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고치고, 생활양식을 고치고, 고등한 생활양식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기 쉽고, 개인의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화적 활동의 가치를 부정하기 쉽다.<sup>25</sup>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선교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목적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문화, 언어,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 먼 곳까지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여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다. 선교는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섬기

<sup>25</sup>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86-291.

는 자의 자세로 인격 전부를 돕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의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sup>26</sup> 따라서 제주 선교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B. 선교의 역사적 이해

앞 절에서는 성경에서의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본 절에서는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선교를 교부시대, 동방교회, 중세로마가톨릭, 종교개혁시대, 계몽주의 이후시대로 살펴볼 것이다.

### 1. 교부시대

초대 교회는 빠른 성장과 결실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야기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자신이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당시 선교의 목적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건설이 주된 선교의 목적이었다.<sup>27</sup> 그러나 초대 교회는 초기의 강력한 운동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많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위기들은 초대 교회의 선교사역과 선교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가 생존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인식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

<sup>26</sup>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서울: 성광문화사, 1983), 291-297.

<sup>27</sup>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176.

키고 교회자신의 상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는 이단과 이교도의 무리와 싸워 승리한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교회는 바울의 선교관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교회와 교회의 교부들은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아래 불신자들은 미개한 자들이었고, 교회는 이들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단에 대하여는 교회는 이단에 대항하여 옳은 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교회에게 이방인과 문명 부재는 동의어였으며, 문화의 전파와 동의어가 되었다.<sup>28</sup>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 이후 독일과 스위스 교회들이 가졌던 선교관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선교사역의 한 양태라 할 수 있다.

## 2. 동방교회

교부시대에서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선교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후 교회 공인과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교회 공인화 이후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발전한 비잔틴 교회는 동방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이 동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는 다른 선교적 관점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

동방교회의 선교는 매우 교회중심적인 선교였다. 교회는 선교의 목표이며 선교가 교회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다. 즉 선교학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론이 되는 것이다.<sup>29</sup> 동방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보여 지는 예전을 중시하였고 이는 선교사역에서도 강조되었다. 동방

<sup>28</sup>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118.

<sup>29</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322.

교회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의 파송과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선교사역에 착수할 수 없었다.

### 3. 중세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은 암흑기(500-950), 부흥과 전진의 시대(950-1350), 후퇴의 시대(1350-1500)의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암흑기의 경우 이때 기독교를 떠받치던 두 기둥은 교황제도와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기독교 선교가 활기를 띠면서 기독교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 표출되는데, 6세기 초반 베네딕트에 의해 세워진 수도원과 성페트릭 수도원 운동,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사 출신으로 로마교회의 수장이 된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영국 선교의 결과로 유럽은 기독교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다시 교황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부패로 교회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었다. 9세기에는 클루니 수도원이 세워져 수도원이 다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주도했고, 선교 주체로 활약하였다.<sup>30</sup>

950-1350년은 십자군 운동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이 시기는 제도적 교회의 침체가 심화된 시기였다. 이 영적 침체를 상쇄하고도 남는 중요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를 개혁하고 선교적 사명을 이어갔으며, 13세기에 들어 수도원 운동은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전도는 발칸반도와 슬라브족들 속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러시아와 중국, 인도 및 몽고지역까지 기독교가 확산되었다. 이 지역들을 향해 가톨릭 선교의 열매는 주로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 선교회의 노력

<sup>30</sup>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80-81.

으로 이루어졌다. 13세기는 중세의 전성기로, 교회의 권력이 최정상에 달해있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스콜라 신학은 교회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탁발 수도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이 시기에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았던 북 유럽 국가들과 중앙유럽이 대부분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힘과 풍부한 활력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서유럽 국가들에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원인은 침략과 정복의 종식, 이로 말미암은 통상의 활기와 경제적 성장, 도시인구의 증가, 근대국가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중세 중반 부흥 시기를 맞았던 중세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야기되는 교회와 국가의 알력으로 인해 다시 침체 국면을 맞았다. 이 시기의 부패한 교권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수세기 결실을 다시 무너뜨렸다. 14세기 중반으로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는 암흑기를 맞아 쇠퇴하였고 이 시기에 계속적인 교권의 분열이 있었다. 교황청과 왕권간의 알력 뿐 아니라 성직 매매와 복수 성직제, 권력 성직제 등의 문제가 크게 야기된 때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 시기에 수도원 운동 역시 활기와 생동감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감화와 영적 비전을 줄 수 없었다. 이러한 가톨릭교회 내 부패와 외부의 정치, 문화적인 도전은 16세기에 일어나는 개혁과 기독교의 새 장을 여는 개혁의 물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sup>31</sup>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전환은 교회의 성격을 뒤바꾸어놓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교회가 순례자적 성격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거치며 종말적 기대는

<sup>31</sup>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83.

약화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 이 세상에서 안착하고 말았다.<sup>32</sup>

이 시기의 특징은 기구화, 교회화, 경직화, 비이교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영적 신앙공동체로부터 기구(조직)로서의 교회로 변화였고, 교회의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말씀과 행위로 복음 전하는 운동력이 상실되었다. 헬라적 정신화, 신앙내용의 규격화, 히브리적 신앙정신의 약화가 이루어져 체험적 지식은 이지적 지식으로, 인격적 응답은 객관적 동의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또한 유연성(말씀과 성령)과 신축성 결여와 자유와 영성의 약화를 낳았다. 비이교화 운동으로서의 선교는 강압적이며, 힘과 무력에 의한 기구적 확장,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한 선교를 하였으며, 수도사들이 전문 선교사로 등장하였다.<sup>33</sup>

#### 4. 종교개혁시대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가 태동되었다. 종교개혁기 개신교 선교는 선교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생각하여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영주의 세력에서 열악했던 기독교는 지리적인 고립과 훈련된 선교인력의 부재로 인해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은 루터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루터교는 첫째, 마태복음 28:19의 대위임은 12사도에게 국한되며 교회는 사도들의 활동의 결과 이미 생산된 것이므로 대위임령은 교회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복음은 마가복음 16:20에 설명된 대로 ‘모든 곳에’ 선포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복음의 거부는 하나님에 의해 허락

<sup>32</sup>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128.

<sup>33</sup>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188.

된 것이라 보았다. 유대인들과 무슬림, 이방인들에 의한 복음의 거부  
는 선교사나 어느 다른 인간의 활동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데 이  
거부는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전체적  
으로 인류가운데서 그의 선택한 자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뿐  
이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종의 문제에서 행해지는 오직 하나의 행  
동은 선교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민족  
들 사이에서 그의 교회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  
다.<sup>34</sup> 루터는 복음전파를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에 비유하였다. 돌이  
호수 복판에 떨어지면 그 파장이 중앙에서부터 호수 끝까지 점차적  
으로 파장을 일으키듯 복음은 땅 끝까지 전달된다고 본 것이다.<sup>35</sup> 이  
시기는 직접적 선교활동은 적었으나 개신교 선교의 중요한 초석을  
놓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칼빈이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  
으로 다섯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칼빈의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야  
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둘째,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의 거  
룩이라는 본질에 더 중점을 두었지 교회의 사명을 덜 중시했다고  
한다. 셋째, 교회 직분에 있어서도 칼빈은 사도와 전도자를 임시적  
으로 본 점이다. 넷째, 칼빈은 선교협회를 세우지 않았다. 다섯째, 칼  
빈은 대 사명을 사도들에게만 제한했다.<sup>36</sup> 칼빈은 교회의 개혁에 강  
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보다 교회의 본질에 더 치중하였  
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교육을 통하여 유럽에 선교하였다. 또한 파송이  
라는 의미의 선교활동도 있었는데, 1555년 휴그노파 신자 해군장교

<sup>34</sup>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102-103.

<sup>35</sup>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3), 43.

<sup>36</sup>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3), 45.

가스파드 콜리뉴(Gaspard de Coligny) 후원하에 니콜라스 뒤랑 드 빌레가농(Nicolas Durand de Vilegagnon)과 수행자 몇 명을 브라질에 파송한 것이다. 이들은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 즉시 콜리뉴와 칼빈에게 목사와 신자를 더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칼빈은 요구대로 파송하였으나 빌레가농은 로마교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순교당했다.<sup>37</sup>

재세례파는 루터와는 달리 선교사역에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개념을 극단적으로 수용했다. 이들은 교구나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펼쳤다. 재세례파의 선교관 중 특이한 점은 재세례파는 교회와 국가간의 절대적 분리와 정부의 활동들에 대한 비 참여를 주장했다. 이는 자연히 교회와 국가가 어떤 경우에서도 선교에서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세례파들은 대위임령의 명령을 계속된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재세례파는 현대 개신교 선교 운동의 선구자들과 평가된다.<sup>38</sup>

이들의 선교목표는 첫째, 거듭나고 성화된 신앙인 공동체들을 초대 기독교의 여러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확실하게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이들은 유아세례를 거부한다. 이러한 확신은 재세례파의 선교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들은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거룩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논하였다. 둘째,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판이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하고 망설이는 자는 다 잃어버린 자이며 따라서 선교의 대상이라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sup>37</sup>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3), 48.

<sup>38</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386-383.

선교사가 되었고 특정한 선교영역을 분할 받았다. 셋째, 재세례파 교인들은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경계선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최전선,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언어적 경계선을 넘는 선교개념을 지지하였다.<sup>39</sup>

## 5. 계몽주의 이후

### a)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의 선교

근대 선교의 첫출발은 모라비안과 경건주의자들에 의한 선교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선교를 시작으로 19세기까지의 선교활동이 문을 열었다 할 수 있다. 개신교 정통주의와 계몽주의<sup>40</sup>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경건주의는 경건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진 할레(Halle) 대학에 의해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할레는 교육선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 할레는 경건주의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회로 알려지고 있다.

모라비안과 경건주의는 개신교 정통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이성적 신앙보다는 감정을 강조하고 회심과 성화, 중생, 영적인 생활, 개인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이론 보다는 실제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강조점 들은 선교관과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건주의 신학의 요점은 진정한 회심의 체험이 없는 한 전도의 열정이 있을 수 없으며, 개인

<sup>39</sup> 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156-157.

<sup>40</sup> 14세기부터 계속된 중세의 변화는 17세기에 들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중세를 지배해온 가치관과 우주관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우주관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가치관과 우주관을 가져온 것이 계몽주의이다. 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2007).

적 경건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41</sup>

경건주의자와 모라비안들은 교회개혁을 선교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방인의 개종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고, 개인의 회심을 주된 선교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경계선을 넘는 선교사 파송을 중시하였다. 모라비안 형제회는 첫 열매는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개신교내에서 분열이 끝난 후에야 시작된다고 믿었다. 이들은 형식적이고 체계화된 교회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이들의 선교관에 있어서 모든 강조는 회심과 개종에 있었다. 개인과 그 개인의 영혼에 대한 집중적 관심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삶을 선교 범위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개종한 영혼의 영역으로 제한되었다.<sup>42</sup> 이러한 선교관은 개신교 정통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그 출발점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 b) 근대 영어권 국가의 선교

급속히 번지는 계몽주의 초기 시대에 이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과 선교가 급속히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기독교 선교의 생명력은 영국과 미국의 교회를 통해 활력을 얻고 있었다. 이 밀려오는 계몽주의 앞에 교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종교를 이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종교를 인간의 경험과 느낌 안에 위치시키고, 이로써 계몽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를

<sup>41</sup>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106.

<sup>42</sup>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서울: 두란노서원, 1985), 159.

사유화시키는 것이다. 즉, 종교적 공간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셋째, 신학자체를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과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즉 신앙이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과학이 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종교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속사회를 수용하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신교 정통주의는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보호하려 시도하였다. 이 뒤를 이은 경건주의는 말씀의 인격화를 강조하고, 관념론은 말씀의 이성화를 강조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자유주의는 말씀을 과거의 역사로 인식하는 반응을 보였다. 관념론적 신학과 자유주의적 신학은 선교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건주의와 이 영향을 받은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만이 선교사역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역은 선교의 목표를 영적인 일로 국한하고 세상을 자신들의 사역범위 밖으로 내어놓았다.<sup>44</sup> 유럽의 경우 경건주의 교회는 당시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비전을 잃고 작은 집단으로 전락하였다.<sup>45</sup> 이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영혼구원과 의을 강조하는 선교범위 선교 목표를 가졌다. 미국의 경우 청교도들의 선교목표는 천년왕국으로 대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다음 네 단계로 기대하였다. 첫째, 영혼의 구원, 즉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다. 둘째, 신앙인들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를 이룬다. 셋째, 그리스도의 통치가 국가에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국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 권위로 선포하게 된다. 넷째, 세계를 통하여 기독교 정부들이

<sup>43</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29.

<sup>44</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15-416.

<sup>45</sup>J. *Ibid.*, 430.

세워지고 그 수가 충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계적 통치가 이루어진다.<sup>46</sup> 청교도들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 관점은 오늘날 이 땅에서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신앙의 세계에만 안주하고자 하는 선교의 관점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 c) 19세기의 선교

19세기에 들어서서 선교의 열정은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 시기는 식민주의적 선교시대, 선교단체 중심 선교,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는 다양한 세계사적 사건 속에서 선교는 폭풍 속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sup>48</sup> 19세기 선교의 대표적 특징은 믿음선교부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18세기에 나타났던 유럽 경건주의 선교의 결실은 19세기에 와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9세기에 나타난 경건주의의 최초의 결실은 중국에서 사역했던 칼 구쯔라프(Karl Gutzlaff)의 선교적 노력을 들 수 있다. 그의 선교적 노력은 새로운 선교활동의 모형을 탄생시켰다. 이 모형은 믿음 선교부(Faith Mission)로서 이 믿음 선교부는 영국과 미국 등에 생긴 선교부들의 모델이 되었다. 믿음 선교부의 특징은 첫째, 대개는 한 사람의 비전으로 출발한다는 것, 둘째, 기구화 된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어떤 때는 대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셋째, 믿음 선교부들은 많은 경우 초기에는 피상적으로 복음화를 하려 한다는 것,

<sup>46</sup>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172.

<sup>47</sup>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2007).

<sup>48</sup>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194.

넷째는 이런 선교부에 소속한 자들은 강한 목시주의적 의식으로 선교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서두르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 다섯째, 대개의 선교사들은 이를 위해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여섯째, 믿음 선교부들은 경제적 지원의 보장 없이 자원해서 보내주는 현금에만 의존하고 사실상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sup>49</sup>

상기했던 바와 같이 경건주의 선교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었는데, 19세기에 들어와 선교부들에 의한 선교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이라는 폭넓은 목표가 아니라 교회개척이라는 보다 좁혀진 의미의 선교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시기에 나타난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선교관은 선교를 문화적 전달로 이해하였다. 선교를 문화적 전달로 이해한 배경에는 그 당시 태동하였던 역사적 비판주의와 합리주의의 결과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가 선교를 문화적 전달로 보는 선교관을 낳게 한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선교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라는데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그 기독교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이 당시 선교의 목표는 교회개척과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은 전도와 교육과 의료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sup>51</sup> 또 약화되기는 했지만 개인의 개종도 이 당시 선교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선교의 주된 목표를 여러 자립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교파주의가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경쟁적인 선교의식과 교파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 버린 병폐도 동시

<sup>49</sup>J. David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161.

<sup>50</sup>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2007).

<sup>51</sup>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3), 307.

에 드러났다.

#### d) 19세기 이후의 선교

‘선교’라는 단어는 1950년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팔목할만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까지 ‘선교’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지정된 지역으로의 파송이나,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일컫는 말로 쓰였으며 약간 다른 맥락에서 그것은 또한 명목상 기독교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심화하거나 전파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특별한 사역들을 가리켰다. 전통적으로 사용된 선교에 관한 더 상세한 신학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선교가 신앙의 전파,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이방인의 개종, 새 교회들의 설립으로 이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sup>52</sup>

오늘날처럼 선교라는 단어가 정착된 것은 바르넥(Gustau Warneak)이 1897년 저술한 복음주의 선교학(Evangelische Missionslehre)에서부터였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전도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현재는 선교가 전도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또는 동등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53</sup> 이렇게 된 이유는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 의해서였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19세기는 기독교가 크게 확장되면서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는데, 그곳 식민지에 기독교 선교를 병행하면

<sup>52</sup>J.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3.

<sup>53</sup>Herman J. Bavin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6-19.

서 백인들이 저지른 탐욕과 몰상식한 행동들은 오히려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sup>54</sup>

그동안 과거의 교회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가 비기독교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러한 제국주의적 선교개념은 1910년 159개의 선교단체, 1,35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선교대회(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사용된 ‘군인들’, ‘세력’, ‘전진’, ‘군대’, ‘부흥단’, ‘전쟁협의회’, ‘전략’ 등의 군사적 용어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sup>55</sup>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전에는 선교학을 일명 사도학(apost-elics) 또는 증가학(Prosthetics)이라 하였다. 이들 개념은 복음을 증거 하는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사도학의 경우 복음증거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곧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도적 권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56</sup>

이에 비해 증가학은 교회 인원이 복음증거 결과 증가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에딘버러 선교대회와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회를 기준하여 선교의 방향이 복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회 복음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각 선교단체가 교리적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 통계수집, 마약퇴치, 교육, 성경번역, 출판, 병원 설립 등과 같은 사업에 힘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sup>54</sup>김해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sup>55</sup>J. David Bosch,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3), 190.

<sup>56</sup>Herman J. Bavin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6-19.

그 결과 선교의 개념은 전도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고 과거의 순수 개념에서 보다 확대되어 결국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가 준비되게 되었다.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회 시 독일 대표로 참석했던 칼 하임(Karl Heim)은 당시 일부 대표자들은 국제 선교협회를 한낱 국제 연맹이나 민주주의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한다.

1950년까지 한 세기 동안은 거의 교회 확장을 노리는 “교회적 선교”가 주장되었는데, 이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를 교회확장에 놓고 사회발전을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을 시도한 빌링겐 국제선교회의(1952)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 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제창되었다. 이로서 교회적 선교론은 선교적 교회론으로 바뀌어 졌으며, 교회의 선교(Missio Ecclesiae)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옮겨지게 되었다.<sup>57</sup>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의 선교는 구원과 문화위임, 이웃의 회복, 사회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억압과 해방의 문제이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를 선교를 목표로 한다. 이사야서는 이방인을 향한 원심적 선교를 이야기한다. 신약은 여기에 가시적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확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의 목표로 추가한다. 성경은 매우 통전적인 선교의 목표를 제시한다.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의 선교와 종교개혁기의 선교, 계몽주의 영향아래의 교회, 포스트모더니즘 아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선교역사는 이 통전적 선교관과 선교의 목표를 향해 문을 열어가는 역사라 할

<sup>57</sup> 변선환,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서울: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1977), 10-16.

수 있다. 이 통전적 선교관 아래 선교의 목표로서의 구원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 선교의 목표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일하는 교회여야 한다. 선교의 목표로서의 사회는 이웃의 회복과 사회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선교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오는 세상,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소망되어야 한다.<sup>58</sup>

### C. 선교의 현대 신학적 고찰

초대교회로부터 19세기까지의 교회에서는 선교를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sup>59</sup> 선교는 예수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므로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였다.

20세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개교회적, 또는 개인적 선교의 차원에서 떠나 세계적이고 범 교회적인 선교차원에서 선교를 보게 되었다. 선교신학은 1836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1867년 에딘버러대학에서 학문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1900년 할레대학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 8차 세계선교대회(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적 대회로 “세계복음화”를 그 이상으로 천명하였다.<sup>60</sup>

그 이후 개신교 선교신학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복음주의적 선교신학과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신학으로 나뉜다.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은 사회문제보다는 개인의 영혼문제에 더 치중해왔으며, 세계교회협

<sup>58</sup>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원, 2007).

<sup>59</sup>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서울: 기독교문사, 1985), 1101.

<sup>60</sup>김동선,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신학이해」 5 (1997, 9), 277.

의회 선교신학은 개인의 영혼구원보다는 사회의 구조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경우는 교단적인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목회자 개인의 신앙적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교회 안의 비 복음적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수용함으로써 교회에 맡겨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전적 선교신학의 입장이다.<sup>61</sup>

### 1. 복음주의 선교

복음주의라는 의미는 시대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이해되어왔고 또한 이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단정지어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교학 사전에서는 ‘복음주의’란 현대선교와 관련하여 ‘복음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2</sup> ‘복음주의’의 어원은 앵글로-색슨 계통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종교개혁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그렇게 지칭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영국에서는 ‘복음’을 정확히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주의자(Evangelicalles)로 표현되었다.<sup>63</sup> 이러한 표현은 17세기 청교도 선구자들과 18세기 감리교도들의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대표자들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용되

<sup>61</sup>김동선,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신학이해』 5 (1997, 9), 11.

<sup>62</sup>칼 필러, 테오 순더마이어 공편,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2003), 161.

<sup>63</sup>*Ibid.*, 162.

었는데, 이처럼 영어권에서는 ‘복음주의자’라는 개념이 개혁을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으로서 저항적, 혹은 개신교적 의미를 지닌 ‘protest’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루터교 정통주의에 대하여 일어난 17세기 독일의 대표적 경건주의자 스페너(Philip Jakob Spener)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s)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sup>64</sup>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를 개혁과 경건주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현대 선교 운동에 있어서 ‘에큐메니칼(Ecumenical)’ 선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복음주의자’의 어원은 1846년 영국에서 결성된 ‘복음주의 연맹(Evangelische Allianz : EA)’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sup>65</sup>

자우터에 따르면 EA는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당시 세계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복음주의자들의 일치에 대한 열망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주의 선교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sup>66</sup> 글래스(A.F.Glasser)에 의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확립’하게 된 것은 로잔대회(1974년)때였다고 한다.<sup>67</sup> 로잔대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의 사회와 타종교, 이데올로기의 변천상황과 그들의 도전도 나누고 검토하며, 그에 따르는 신학적인 정리도 하였다. 그래서 1974년 로잔 연합의 기초에서 그를 보완하는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을 발표하였다. 참가자 일동은 세계 선교를 보다 촉진하여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지구

<sup>64</sup>칼 필러, 테오 슌더마이어 공편,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2003),162.

<sup>65</sup>김해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sup>66</sup>김은수, "복음주의 선교와 신학적 과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1999), 32.

<sup>67</sup>아더 글래스, 도날드 맥가브런, 「현대선교신학」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234.

상에 한명도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부르시어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언약하며 대회를 마쳤다.<sup>68</sup>

이렇게 복음전도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도와 성서의 권위, 복음전도의 목표로서의 교회성장의 문제를 다룬 1974년 로잔대회에서 복음주의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교이해는 단순히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거나, 교회를 단순히 적대적인 환경가운데 있는 도피처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성소(sanctuary)로 이해하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sup>69</sup>

보편적으로 복음주의가 잘하는 것은 차갑게 식은 형식적인 종교를 부활시키는 일이며, 복음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에선 위대한 신학자였다고 보지만, 문화나 사회에 대한 신학자는 아니었다. 사회에 관한 신학만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도 문제이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있어 문화나 사회가 도외시 되는 기독교도 문제이다.<sup>70</sup>

복음주의에서 선교를 전도로만 이해하는 입장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기능이 나타난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 엄필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인 영혼 구원을 선교의 최대 목표로 두며 속된 세상 속에서의 구원의 방주 기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교회나 개인이 속한 사회의 비리와 구조악의 근본적 개선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차원보다는 교회에로의 피신과 탈피를 통한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비기독교적 요소를 죄악시하며, 배타

<sup>68</sup>조종남, "로잔대회와 복음주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5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21.

<sup>69</sup>이원규, "21세기와 선교," 「현대선교신학」 2 (서울: 전망사, 1994), 589-590.

<sup>70</sup>Mark A. Noll, "복음주의의 대두," 「목회와 신학」 194 (서울: 두란노서원, 2005), 243.

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교회 중심주의는 교회의 물량적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적 증가는 곧 하느님 나라의 지상 확장이요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2. 에큐메니칼 선교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헬라어의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왔으며, 한글로는 오늘날 ‘교회일치’로 번역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큐메네’와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는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의 일치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에큐메네는 교회원래의 공동의 전통을 회고하며 또한 신앙의 가르침과 생활 속에서 하나 됨에 대한 희망을 추구하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sup>71</sup>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라 말한다.<sup>72</sup> 에딘버러에 나타난 선교개념은 19세기 전통적 선교개념과 큰 차이 없이 교회설립과 개인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고 제3세계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느냐는 선교전략에 집중하는 세계 복음화를 논하면서 전도위주의 선교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현장에서 일어났던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가 도리어 총체적 선교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서 ‘에큐메니즘’(ecumenism), 곧 선교에서 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

<sup>71</sup>칼 필러, 테오 순더마이어 공편,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2003), 425.

<sup>72</sup>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1.

계 교회 중심적 사고에 안주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선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sup>73</sup>

에큐메니칼 선교는 흩어지는 교회(diaspora)와 흩어지는 구조(go-structure)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사회적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세계의 역사와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변화들을 하나님의 활동의 나타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위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해방과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가 가진 장점은 무엇보다 사회와 동떨어지지 않는 감각을 가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상황과 분리되어 개교회 중심의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 사회와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돌보며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큐메니칼 선교가 가진 사회 복음화의 관점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져있는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복음주의가 가진 개인복음화의 관점이 함께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복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의 통합적인 한국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복음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맞은 세계 선교단체들은 ‘선교가 무엇인가’, ‘왜 해야만 하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타종교와의 대화, 사회 역사적 관심, 세상구원, 보편 구원설 등의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sup>74</sup> 따라서 교회 밖의 모든 일이 다 선교의 대상이며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를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교

<sup>73</sup>장성배, “선교와 전도,” 「선교학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94.

<sup>74</sup>이정화, “선교의 성서적 기초,”(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회가 다 선교요 모든 평신도가 다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정에서 발견된 신학적 진주로서 에큐메니칼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밀착되어있다.<sup>75</sup> Missio Dei의 정확한 기원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감독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다. 그는 함부르크대학교의 발터 프라이타크(Walter Freytag)교수가 편집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는 선교」라는 빌링엔 대회에 관한 독일어 보고서 가운데 “신학적 각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Missio Dei(특별히 라틴어 형태)를 처음 채택하였다.<sup>76</sup>

하르텐슈타인 이후 ‘Missio Dei’는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중심되는 신학적 술어가 되었다.<sup>77</sup> 이 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은 네덜란드의 신학자 후켄다이크(J.C.Hoekendijk)이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할 이 세계에 복음이 증거 되어야만 하고, 이때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와의 충돌은 사도직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성과 복음은 근본적으로 함께 속해있어서 사도직 안에서 복음은 편만하게 된다(롬 15:19).

하르텐슈타인에 의하면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행위 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선교란 온전한 복음을 인간 전체의 삶 속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재발견이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전체 역사를 선교의 확장이며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선교의 목표이다.<sup>78</sup>

<sup>75</sup>황순환, 「선교와 문화」(서울: 담론사, 1998), 282-294.

<sup>76</sup>*Ibid.*, 282-294.

<sup>77</sup>석숙미, “21세기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선교패러다임,”(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sup>78</sup>황순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선교학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73.

이것을 종합해보면 에큐메니칼 선교는 복음주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둘로 양분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특징이 있다는 것과 교회의 수적 증가와 일방적인 복음 선포에 반대하며 선교의 대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인간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몇 가지 비판을 가했다.<sup>79</sup>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통적인 선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과 둘째, 인간화의 과정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셋째로는, 성서를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아 지나치게 귀납적으로만 해석한다는 비판, 넷째, 세상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가 잃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Missio Dei) 신앙을 전제한다고 박순경 교수는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에서 피력하였다.<sup>80</sup> 요한 칼빈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다. 칼빈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계급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구원과 생명을 주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프랑스 식민지를 브라질 해안에 건설하려는 의도를 승인하는 등 해외선교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제네바의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국내 교회의 복음전파, 교회조직, 회심 등에 관심을 가졌다.<sup>81</sup>**

<sup>79</sup>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3.

<sup>80</sup>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학기독교출판사, 1984), 267.

<sup>81</sup>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Georgia: John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두 개의 큰 그룹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가 있다. 이 두 개의 각 그룹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은 일치하고 있다. 선교의 위기에 처해있는 오늘날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진 이 두 진영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

Knox Press, 1981), 50-51.

### III. 제주도 선교의 역사와 의미

#### A. 제주도 선교의 시작

초기 제주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준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제주도를 이용하셨다. 네덜란드의 ‘하멜(Hendrik Hamel)’은 1653년 (효종 4년) 동아시아에 교역을 위해 일본의 장기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제주도 앞 바다에서 나파되었고, 하멜 일행 중 28명은 익사하고 36명은 화순포에 상륙하였다. 이들은 제주목사 이원진의 신문을 받고 서울로 압송되어 다시 전라 병영 강진에 유배되어 잡역에 종사하다가 다시 전라 좌수영(여수)으로 호송되어 같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하멜 일행은 일본으로 도주하여 1668년 7월 고국에 돌아가 그동안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표류기’라는 책을 기술하였다. 이 책은 당시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 독어, 영어, 불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 한국을 소개하는 유일한 책이 되었다.<sup>82</sup> 사실 제주도의 선교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것은 1908년이지만 제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10년 정도 앞선다. 제주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한국의 대표적 개신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면서였다. 그는 순회선교를 통해 그 주변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리 로즈가 <북장로교 50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1890년 부산에 거점을 마련한 베어드의

<sup>82</sup>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94-96.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제주까지 전해졌다. ‘베어드씨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길가에서 전도했고 항구에서 선원들에게 전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제주도까지 전해졌다’<sup>83</sup>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파송되기 전 부산항과 제주도간의 연락을 통해 복음이 제주도에까지 전달된 것이다.

이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알렉산더 피터스와 켄뮤어가 선교를 목적으로 최초로 제주도에 발을 디뎠다. 특히 피터스는 제주도를 다녀온 후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의 제주도 기행문에는 제주도의 풍물과 지리적 중요성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가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아마도 당시 제주도가 전라도 행정구역 편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를 담당했던 권서인으로 제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84</sup> 1890년부터 간헐적이지만 육지와외 왕래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기록을 통해 찾기는 어렵다.

제주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당시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사역하는 기독교인은 없었다.<sup>85</sup> 원산부흥운동과 평양 대 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대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외형적 틀을 다져주었을 뿐 아니라 해외 선교열을 가속화시켰다. 1907년 한국교회는 외형적 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신앙고백의 채택과 신학교육을 통해 나름대로 신학적 틀을 다지면서 해외선교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sup>83</sup>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Seoul: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934), 129.

<sup>84</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204-241.

<sup>85</sup>*Ibid.*, 204-241.

1907년 제주 선교사로 임명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를 위해 그의 가족과 함께 1908년 인천항을 출발하여 해로로 제주로 향했다. 그러나 풍량이 심하여 동행했던 가족들은 목포에 머물고 이기풍 목사 단신으로 항해를 계속했으며, 풍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겨우 추자도에 상륙하였다가 고종황제 퇴위 다음해인 1908년 4월 초 마침내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sup>86</sup>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역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1899년 있었던 신축교란으로 거칠어진 인심은 서양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예수교를 전하는 이기풍 목사를 서양사교를 용납할 수 없다며 관가에 고발하고 추방하려 했으나 이때는 이미 정부가 기독교 선교를 허락한 이후여서 관가에서는 소요 무리를 무마시켜야만 했다. 이기풍 목사는 숱한 어려움과 굶주림에서도 제주도 선교에 온 힘을 다했다. 그로 인해 1908년 독노회 앞에 제주도에 파송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입인 9명, 주일출석 20명이라는 선교 결과가 보고되었다.<sup>87</sup> 단시간 내 이러한 결실이 가능했던 것은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예수를 영접한 김재원과 젊은 구도자 김행권, 홍순홍의 협력이 제주선교에 중요한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재원과 홍순홍은 1917년 4월 1일 장로장립을 받았고, 김행권은 제주의 첫 집사가 되었다.

이기풍의 파송으로 촉발된 선교정신은 전국 교회에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다. 독노회와 한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 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이 장, 단기적으로 제주에서 동역하도록 여러 다른 사역자들

<sup>86</sup>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2.

<sup>87</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204-241.

을 파송했다. 1908년 평양시내 여성 교우들은 제주도의 여성 사역을 위해 이선광(李善光) 여전도사를 파송하였고, 1909년에는 평양 숭실대학과 숭실중학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선교비를 모금하여 동료 숭실 대학생 김형재(金亨載)를 파송하여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사역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sup>88</sup>

1925년 기록된 문서를 보면 모슬포, 법환, 중문, 용수, 금성, 조천, 삼양, 세화, 성읍 등 교회연합의 서두가 이기풍 목사의 전도로 시작되었고, 이기풍 목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다.<sup>89</sup> 이처럼 제주도의 선교가 시작되고부터 해방 전까지 제주의 교세는 꾸준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908년부터 1942년까지 제주교세 통계

년도	1908	1910	1911	1912	1930	1936	1940	1941	1942
교회	1	3	교회 3 기도처 2	교회 3 기도처 5	17	20	24	24	24
성도	20	100	160	400	1,078	1,534	2,105	2,196	1,606

(자료: 박용규, 2008)

위 <표1> 에서 1908년부터 19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교세가 그 후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동군의 대거 제주유입과 전쟁으로 인한 시국의 혼란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음이 나타난다.

제주 선교는 일제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사참배가 강요

<sup>88</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2008), 204-241.

<sup>89</sup>박민수, "제주선교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되고 1943년 6월 10일에는 제주노회가 해체 당했다. 일제 말 교단 통합에 따라 제주도의 모든 교회가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제주교구에 편제되었고, 정순모 목사가 교구장, 강문호 목사가 부교구장에 임명되었다. 1944년에는 전 제주도가 군사요새화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군사기지로 화하였고, 더욱이 성내, 한림, 모슬포교회 등은 일본군에 징발당하여 일본군인의 숙소가 되었다. 1945년 7월 6일에는 미 공군의 공습으로 한림교회와 사택이 전파되었고, 이때 담임목사인 강문호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의 매씨인 강연아는 사망하였다. 또한 한림교회 교인이 8명이나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sup>90</sup>

## B. 해방이후 제주도 선교의 변화

해방이 되면서 제주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다가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일본군으로부터 교회당을 찾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또 노회의 행정과 교회를 복구하기 위해 새로 노회를 재건하였으며 강문호 목사가 노회장, 이도종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해방이 되자 제주노회에서는 전도 강연회가 각지에서 시행되고 전도에 흠여져있는 170여개 부락을 다니면서 주민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였다.<sup>91</sup>

하지만 1945년 해방 후 해방의 감격이 채 가지기도 전에 한국 민족은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또 다른 수난에 크게 직면해야 했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분단 현장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였지만 큰 피해를 당해야 했던 지역이 제주도였다. 대표적 사례가 1948년 4월 3일에 발발한 ‘제주 4·3 사건’이다. 이로 인

<sup>90</sup>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제주선교,” 「기독교대백과사전」 13(서울: 기독교문사, 1984), 1177.

<sup>91</sup>*Ibid.*, 1177.

해 인명피해만도 남로당 측 기록에는 80,005명, 제주도지의 기록에는 35,821명에 이르렀다.<sup>92</sup>

이 사건이 제주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이도종(李道宗) 목사 순교사건’ 때문이다. 이도종 목사는 금성교회 창립교인이며, 이기풍 목사의 천거로 평양 숭실학교에 유학했고,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여 제주출신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한동안 전북 김제읍 중앙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으나 1930년 제주노회의 설립 이후에는 줄곧 제주목회에 헌신한 제주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다. 1948년 6월 이도종 목사는 북 제주 일대의 교회를 순회 목회하던 중 ‘공비’에게 납치,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후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복음 증거자로서의 품격을 지킨 태도에 대해 여러 일화가 전해지며, 이 밖에도 허성재 장로와 기독교인 17명이 학살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sup>93</sup> 그러나 4·3사건의 규모에 비해 이 사건에 대한 기독교회의 관여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로 볼 때 당시 기독교회의 입장이 중립적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6월에는 고산교회당에서 노회를 소집하여 4·3사건으로 순교 또는 희생당한 성도들을 위한 추도식을 노회장 강문호 목사의 사회로 엄수하였으며, 소실된 교회에서는 노회에서 20만원씩을 보조하였다. 그리고 이때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원은 목사 7인, 전도인 7인, 그 외 각 교회의 지원자로 하여 제주읍 동부에서 성산포까지 송영호, 최희준목사, 성산포에서 서귀포까지 한기춘, 김윤옥 목사, 서귀포에서 고산까지 조남수, 김영모 목사, 고산에서 제주 읍까지 강문호, 이윤학 목사를 강사로 하여 낮에는 호별방문 오후에는 전도 강연집회를 갖고 많은 결신자를 얻었

<sup>92</sup>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호, 2000), 173-192.

<sup>93</sup>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12), 246-248.

으며, 이때의 결실이 1951년 이후 피난교인들과 연결이 되어 마침내 1950년대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해방이후 제주사회와 기독교간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역시 한국전쟁기라 할 수 있다. 1950년 7월에만 공식통계 1만 명의 북한출신 피난민들이 제주로 몰려들었고, 특히 북한출신 교역자들은 피난민 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선교에도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 선교역사 이래 가장 폭발적인 교세 성장을 이룩했다. 이환수, 김재호, 이인식 목사 등이 이 시기 제주선교의 대표적 공헌 자였다. 특히 1951년 1.4 후퇴 시에는 미군의 대형 수송선을 이용하여 기독교인들로만 피난선을 마련 대규모 제주도 이주를 단행한 연유로 제주의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중 제주도에 입도한 피난민은 3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휴전 이후 다시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제주에 정착하였고, 이들 기독교인들에 의한 제주도인 전도성과는 선교역사 전체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능가할 정도로 보인다.<sup>94</sup> 김수진은 이 시대 제주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sup>95</sup>

“해방과 6.25의 격동 속에서도 제주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계속 부흥의 길로 나아갔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이북에서 피난 나온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모여들자 피난민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들이 세운 교회가 제주영락교회, 도두교교회, 한라교회, 라북교회, 신촌교회, 함덕교회, 시온교회, 효돈교회, 보목교회, 토평교회, 추광교회 등이다. 6.25사변 당시 제주노회출신인 김재선 목사는 목포에서 순교 당했다.”

또한 분단이후 한국전쟁기 제주 기독교회사에 큰 변화를 보인

<sup>94</sup>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sup>95</sup>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제주선교,” 「기독교대백과사전」 13(서울: 기독교문사, 1984).

것은 개신교 교파의 다양한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선교 이래 줄곧 장로교 선교구역으로서 단일 개신교파 선교지역이었던 제주도에 도인권 목사와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성결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등등 육지의 거의 모든 개신교파가 제주에 진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교단분열의 여파가 제주교회에도 몰아쳐서 제주의 중심적 장로교회들이 이러한 분열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sup>96</sup> 1959년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때 거의 절대다수의 교회들이 통합 측을 택했다.

1959년 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후 지금까지 제주선교를 주도한 것은 통합 측이었다. 합동총회가 제주노회 복구를 결정한 것은 1971년의 일이다. 그 후 제주도에 선교가 진행되었지만 그 결실은 미흡했다.<sup>97</sup>

결국 분단이후의 제주도 기독교회는 격변과 수난을 겪었지만,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제주 기독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였고 또한 새로운 역할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분단이후사의 최대 사건인 한국전쟁은 제주도민의 '토착성' 또는 '배타성'에 큰 자극을 주었고 제주사회의 충격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와 함께 유입된 새로운 인구 중 다수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 또한 신앙적, 사상적 의미에서 제주사회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켰다 볼 수 있다.

박용규(2008)<sup>98</sup>는 해방 후 지금까지 제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을 가져다 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다. 첫째, 북한 공산정권과의 대립이 낳은 갈등이다. 북한 공산정권과의 대립

<sup>96</sup>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2.

<sup>97</sup>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204-241.

<sup>98</sup>*Ibid.*, 204-241.

은 제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수난이 제주도에서도 시작되었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사건”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기록상의 차이는 있으나 인명피해가 적게는 35,821명, 많게는 80,005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성격상은 비종교적인 사건이었지만 여순 반란사건에서 보여주듯 실제로는 교회의 피해가 극심했다.

둘째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피난민들의 유입이다. 통계에 의하면 1951년 7월 1만 명의 북한 출신 피난민들이 제주에 유입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피난민들이 제주에 유입되어 한국전쟁 기간에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피난민은 적어도 3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과 교역자도 포함되었다.

셋째는 한국전쟁 이후 다양한 교파의 유입이다. 1908년 이기풍이 제주도에 파송된 이후 해방 전까지 제주 선교는 장로교가 주도했다. 그러다 한국전쟁 이후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단들이 제주도에 설립되었다. 아직은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성장의 틀을 다지고 있다.

넷째는 1950년대 세 차례의 장로교의 분열이다. 1952년 신사참배문제로 고신이 분열하고 1953년 성경관 문제로 기장이 분립하고 1959년 에큐메니칼 문제와 WCC 문제로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었다. 하나의 장로교단에 소속된 제주의 교회들은 이들 분열과 더불어 고려파, 기장, 통합, 합동으로 분열되었다.

한국전쟁이후 여러 교파가 제주에 선교를 시작해 1960-1970년대에 접어들어 제주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1965년 제주에는 예장통합 60교회, 감리교 15교회, 기장 10교회, 기성 2교회,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2교회, 한국예수교개혁파장로회 2교회 총 91개교회가 있었다. 그 외 통일교 2교회, 안식교 2교회, 천주교 성당 5개가 있다.<sup>99</sup> 이로부터 수년 후인 1980년대 초 제주에는 통합교단 68, 기감 24, 기장 16, 합동 10, 침례 10, 예성, 고신 2, 성회 1, 그리스도 8, 예성(연) 1 종합 146개 교회로 증가했다.<sup>100</sup>

제주의 기독교 인구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주선교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교세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1999년 7월 제주의 개신교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개 교회, 299명의 교역자에 30,110 성도이다. 지역적으로는 제주시가 73교회 148명 교역자에 교인 14,3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귀포로 44교회, 66명의 교역자, 8115명의 교인이다. 북제주군에는 50교회, 50명의 교역자, 3,907교인이고 남제주군이 35교회에 35명의 교역자 그리고 3,712명의 신도수가 있다.<sup>101</sup>

오늘에 이르러서는 교회연합기관으로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4개의 제주교회협의회와 연합회가 있다. 그 외 기드온협회, 제주 YMCA, 제주 YWCA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있으며, 벨렐 기도원을 비롯하여 10여개의 기도원 및 수양관이 있으며, 기독교 언론기관으로는 제주기독교신문이 1992년 8월 27일 창간되었다. 선교기관으로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비롯하여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 제주 OM, 연안선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있다. 또한 아세아방송국이 1973년 제주에 개국되어 북한,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비롯한 아세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제주를 비롯한 국내복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sup>102</sup>

<sup>99</sup>이상용 편, 「1965년도 한국기독교연감」(서울: 경천애인사, 1965).

<sup>100</sup>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제주선교,” 「기독교대백과사전」 13(서울: 기독교문사, 1984).

<sup>101</sup>기독교신문, 1999. 7월호. 21.

<sup>102</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

## C. 제주도 선교의 중요성

본 장 A와 B에서 살펴보았던 제주선교 역사에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면,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협력자들과 후원자들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그간 독노회, 전라노회, 전남노회에서 계속하여 책임을 지고 후원을 해주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선교사역이었다. 천주교회의 제주전교 방법과는 달리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초기 개척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자 전도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다. 셋째, 3.1운동에 교회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 교회 뿐 아니라 전국교회가 적극 참여하였던 것으로 당시 교회가 개인 구원을 넘어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넷째, 1948년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슬픔이 있었을 때 제주노회가 제주도 전역에서 축호전도와 전도 강연회를 열어 선교에 힘썼다는 점이다. 제주 4.3사건으로 17명의 성도를 잃고 여러 교회들이 소각당하고 성도들의 가옥이 파손되었으며 여러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한 17인을 위한 추도식을 제주노회가 1949년 거행하고 전도대를 4개 지역으로 조직하여 밤에는 전도 강연집회를 낮에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교를 함으로써 195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선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사회선교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사회봉사를 통해 선교를 하였지만, 제주 교회는 학교나 병원이 없었다.

---

대학원, 1999).

지금은 학교나 병원이 많아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만 당시 학교나 병원이 없을 때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 폭넓은 선교를 하였다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50% 이상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둘째, 4.3사건에 있어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지 못했다. 4.3사건이 제주 역사 이래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 27만 명의 인구 중 3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것도 90%가 경찰과 군인 및 토벌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이때 교회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함에도 교회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선교역사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선교에 대한 이해가 통합적 구원이 아닌 개인 영혼구원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해외 선교지로서 제주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제주 선교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역사와 맞물려 있다. 상기하였듯 1907년 독노회때 첫 안수 받은 일곱 명의 목회자 가운데 한사람인 이기풍이 독노회의 파송을 받아 1908년 제주도에 도착한 후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제주도는 몇 차례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교세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이성으로 인해 배타성이 강하며, 육지보다 선교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겪어왔다. 이러한 제주도에서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타 지역의 선교사역 및 배타성이 강한 타민족에의 선교사역에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V. 제주도 선교의 문화적 배경과 선교현황

### A. 제주도의 고유정서와 친족의식

제주도는 자연 경관이나 말씨가 육지와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생활습관과 생활태도도 육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제주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권당문화’를 들 수 있다. ‘권당문화’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로,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마을 단위 내에서 혼인을 통해 친인척으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문화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친인척으로 연결되어있고, 이혼이나 재혼, 삼혼 그리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 인해 친인척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다고 해도 마을에서는 모두 삼촌, 조카로 살아가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 문화이다.<sup>103</sup>

권당문화는 노동과 소속감과 성취감, 마음의 평안 등 생존과 인생문제 전반에 걸쳐 스스로 답을 주는 완결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사를 매개로 하여 권당문화는 거부하기 힘든 일종의 대체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사람들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벗어나기 힘든 살아있는 힘이다. 누구도 권당에서 축출된다든지 거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권당 문화를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다.<sup>104</sup>

제주도의 문화적 특징으로 두 번째는 가족제도를 들 수 있다. 제주의 가족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제주의 가족 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 이것은 제주도의 독특한 생활

<sup>103</sup>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407.

<sup>104</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조건과 연관이 있다.<sup>105</sup> 제주도의 가족은 현실적으로 핵가족이 절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 유형의 측면에서도 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핵가족은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현상, 즉 분업화가 촉진되면서 근대 이후 출현한 서구적 의미에서 핵가족과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 근대화 이전부터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영향도 수용한 적이 없이 제주도라는 특이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온 핵가족 형태인 것이다.<sup>106</sup>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특이한 점으로 철저한 분가원칙이 있다. 육지의 전통적 가족제도로는 장남이 혼인하여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차남부터는 말할 것도 없이 장남까지도 혼인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자식을 분가시키고 부락 안에서 따로 생활하는 노인 가족들을 제주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아들 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경작지를 나누어 따로 농사를 짓고 밥도 따로 해먹는다. 이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따로 마련해 줄 형편이 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한 울타리 안에서도 부모식구와 자식식구가 따로 살림을 하는 것은 육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분가원칙의 좋은 예가 된다.<sup>107</sup> 이렇게 생활이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지의 전통가족제도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교부갈등이나 시누이와 올케사이의 갈등이 제주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곧, 부부 중심의 생활은 자연히 시어머니의 통제력이나 시누이의 시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sup>105</sup>박민수, "제주선교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 2002).

<sup>106</sup>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407.

<sup>107</sup>박민수, "제주선교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자율성과 역할 참여의 증대를 가져온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사후혼인을 들 수 있다.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사후 혼인은 아직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를 가리켜 사혼, 사후혼인, 사후결혼, 죽은 혼사, 사망혼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므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무적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게 되므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사후 혼인을 하여 대(代)를 이어주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후 혼인이 이루어지면 양자를 데릴 수 있고, 양자를 데리므로 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후 혼으로 맺어진 양가도 보통 결혼으로 맺어진 양가의 관계와 같이 예를 갖춘다.<sup>108</sup>

이러한 친족의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제주에서는 이런 가족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친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천주교는 한국 전래과정 중 조상제사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아오다 1939년 12월 8일자로 조상제사는 일종의 풍습 또는 민간의 식이므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허용하였다.<sup>109</sup> 이는 천주교가 충분한 신학적 평가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현지 토착문화에 적응함으로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된 예라 할 수 있다.

<sup>108</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sup>109</sup>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제주백년」 (서울: 태광문화사, 1984), 1124-1127.

## B. 제주도의 민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제주도인들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오랜 수탈의 역사 속에서 미신적 토속신앙을 자기 구원으로 생각해왔다. 무당이 성행하며, 뱀신 등을 숭배하였고, 가는 곳마다 신목(神木), 신당(神堂)이 많이 있었다. 제주 속담에 ‘당(堂) 오백 절(寺) 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들의 섬’이라 할 만큼 신앙이 많은 섬이다. 제주도에 는 무려 18,000개가 넘는 신앙이 있다.<sup>110</sup> 이러한 종교적 배경으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토속신앙 중 시신(時神)이 있다고 믿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는 묵은 귀신은 위로 올라가고, 새로운 귀신이 내려온다는 신구간(新舊間)이 있다. 이때에는 묵은 귀신은 올라가고 새 귀신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하여 집을 이사하게 되는데, 이 풍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sup>111</sup> 사실상 이때가 연중 가장 추운 때이므로 많은 불편이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유교적 의례가 있어 이를 실행하고 있는데 산제와 포제가 있다. 산제는 토지신제로 연초 구정이 되면 길일을 택하여 밤에 행하는 제로써 가정에서 행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포제는 도내의 각 부락마다 행해지는데 대상은 포신지려이며 제법은 향교의 석존제와 같다. 이 포제를 지낼 때 협조자가 되지 않으면 그 부락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sup>112</sup>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및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제주인들에게는 상기한 미신적 무속신앙 외에도 불교 및 기타 여러

<sup>110</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sup>111</sup>변승규, 「제주도약사」(신간사, 2004), 175.

<sup>112</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재인용.

종교들이 성장하고 혼재해있다. 이중에는 성장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다. 성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따라서 성장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침체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제주기독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종교현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 1. 불교

제주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종교는 불교이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 인구 중 절반이 종교인구이다. 통계청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는 530,686명, 그 중 272,590명이 종교인구이고 나머지 약 절반 258,096명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약 26만 명이 개종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 각 종교가 일차적으로 이 26만 명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선교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종교 간의 개종도 중요한 영역이다.<sup>113</sup>

제주 종교인구 중 63.7%(173,658명)가 불교신도로 되어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종교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 불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종교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종교호감도(1위 가톨릭, 2위 불교, 3위 개신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통계에 잡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친 불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종교인구 1위를 지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삼국시대 이후 한민족과 함께해 온 토착 종교이므로 불교가 제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 생각한다.

<sup>113</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7-31.

그러나 제주에서 불교는 오래된 토착종교가 아니었다. 제주에 불교는 몽고의 제주 지배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래되었다. 그러나 몽고가 물러나고 제주가 조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제주에서 불교는 조선왕조 500년간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사라진지 200년 만에 다시 부흥이 된 종교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제주에 불교를 포교하러 왔던 두 승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제주의 대표적 사찰인 관음사(觀音寺)가 창건된 것이 1908년이다. 관음사를 창건한 화북출신의 여자 스님인 봉려관(蓬廬觀)스님도 마을 사람들의 배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제주의 불교는 해방 이후 급속히 번성하였다. 제주의 불교는 가톨릭 선교(1899년), 개신교 선교(1908년)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진 것이다.

불교가 제주에서 해방이후 어떻게 그렇게 급속히 번창했는지에 대해서는 종교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가장 큰 이유는 제주 민간무속신앙관의 결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에서 그렇지만, 특히 제주에서 민간신앙, 무속신앙은 그 뿌리가 깊고 영향력이 대단하다. 민간 무속신앙은 제주사람들의 삶과 제주 문화의 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불교는 일정하게 민간 무속신앙을 받아들였다. 절 뒤편에 있는 삼신 각이나 칠성단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간무속신앙은 어디까지나 한 주변적 요소로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주불교는 좀 사정이 다르다. 제주 불교는 한마디로 본전불 앞에서 무당이 굿을 하게 허용하는 불교이다. 불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내는 민간무속신앙이 건재한 모습이라 하겠다. 오히려 불교가 민간 무속신앙에 점령당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불교의 제주화, 또는 제주화된 불교라고도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제주불교는 제주사람들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모습이 되었고, 민간무속신앙을 끌어안음으로써 문화적 갈등이나 거부감 없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보다 현실적인 적응이 작용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으로 표방된 근대화운동으로 제주의 점집의 70%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민간무속신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자 무속인 스스로 당(堂)을 절로 개조하고 스스로를 범사, 보살로 칭하면서 제도권 불교로 들어왔다. 이를 제주 불교와 제주사람들은 별로 거부감 없이 수용한 듯 보인다. 제주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근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미신 같은 꺼림칙한 면을 탈피하고 좀 더 그럴듯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본 듯 하고, 제주 불교에서는 포교하지 않고도 세(勢)를 불리는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 2. 제주 가톨릭교회

1899년 제주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제주선교가 시작 된지 만 2년 만에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신축교난(辛丑敎難)’, ‘성교난(聖敎難)’이라 부르고, 제주사람들은 ‘제주교안(濟州敎案)’, ‘1901년 제주항쟁’으로 부른다. ‘이재수의 난’은 가톨릭 교인들의 폭압적 행패에 맞선 제주사람들의 항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곳의 선교는 한동안 거의 불가능하며, 이런 큰 사건이 수습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여 1990년대 이후 도약 적으로 성장하였다. 먼저 ‘신성여자중고등학교’를 1909년 설립하였다. 이때는 ‘이재수의 난’의 여파로 아직 어수선할 때였으며, 당시 여성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문화와

신문명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실정에서 선각자적인 일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톨릭교인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일반인들의 자녀도 입학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적 사역은 제주사회와 가톨릭교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재) 신부의 선교사역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26세 때인 1954년 제주도에 파송된 아일랜드 성골롬반선교회 소속 선교신부이다. 그는 50년 넘게 제주선교사역에 헌신한 인물이며, 지금도 제주에서 사역하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제주사람들과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 행동했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제주 중산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이시돌목장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에 편지를 쓰기를 수없이 하여 그들이 보내준 5불, 10불을 모아 300만평의 넓은 목장을 확보하고, 목초를 기르고 목장을 만들어 소와 양, 돼지를 기르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나중에는 이 300만평의 땅을 일부만 남겨놓고 다시 농민들에게 분배해주기도 했다. 농민들의 이농과 전매를 막기 위해 일정조건을 붙이긴 했으나 거의 무상에 가깝게 나누어주었다. 양모모직회사와 편물사업을 비롯해 사료공장과 우유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힘썼다. 또한 젊은이의 집과 양로원과 유치원과 경로당 호스피스 병원 등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제주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가난과 싸우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한림을 중심으로 신창, 청수, 저지, 금악 지역에 선교사역도 꾸준히 병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사람들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부임당시 25명이었던 한림지역(신창, 청수, 저지, 금약)에는 현재 약 5,000여명의 가톨릭신자들이 있고, 이 지역 출신인 가톨릭신자도 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70년대와 80년대 계속되어 온 가톨릭교회의 현실 참여와 그에 따른 가톨릭교회의 공신력과 호감도가 상승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셋째, 최근 제주에서의 가톨릭의 약진은 이러한 바탕위에 가톨릭교회의 조상제사 수용과 관련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상제사는 제주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제2 바티칸 교의회 이후에도 소극적이었던 가톨릭교회 안에서 조상제사 수용이 본격화되는 1990년대와 제주 가톨릭교회의 약진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신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어 제주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에서 다 같이 조상제사를 금할 때는 불신자들도 그러려니 했는데 가톨릭교회가 입장을 바꾸자 불신자들은 개종의 갈등이 적은 가톨릭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조상제사 문제로 집안 불신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개신교 교인 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는 개신교 교인 중 중직자들도 교회의 통제를 넘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교회는 묵인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개신교 교인들 중 초창기 신자들과는 달리 이제 이 조상제사문제로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선교에서 문화와 신앙의 갈등, 기존 전통문화의 수용 문제를 다시 숙고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

각한다.

## C. 제주도의 선교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의 제주선교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신학적 사고의 성숙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단과 선교단체가 이 부분에 먼저 주목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당대의 과제를 분명히 볼 수 있고, 합당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 당대의 문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당대의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사회적 과제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선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현장과 현실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비판적인 성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주선교의 문제와 과제를 명료하게 찾아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대안을 개발하여 선교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과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제주도의 선교현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제주선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제주도의 선교현황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선교사로 파송된 1908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지난 2008년으로 제주 기독교가 100년이 되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선교사로 오기 전 이미 기독교인이 제주에 있었던 것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제주기독교는 100년이 넘었다. 10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해왔는데, 현재 제주의 복음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교회 자체의 통계에 의하면 약 8.7%의 복음화율을 갖는다. 그러나 여러 교회에 이중 삼중 등록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복음화율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리라고 본다. 실제로 국가 통계청의 2005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은 38,183명으로 되어있다. 이는 인구비율로 7.1%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중 제주 토착민의 복음화율은 약 절반수준으로 추정한다. 실질적으로 아직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sup>114</sup>

<표 2> 제주의 종교별 교세 현황

종파명	집회소 수	집회 명 분류	교직자 수	전체 신도 수
불교	169개 (등록 131, 미등록 38)	사찰	승려 252명	58,103
기독교	170개	교회	교역자 192명 목사 105 전도사 87 59	41,259
천주교	31개 본당 12 공소 19	성당, 공소	주교 1, 신부 18(6) 수사 2, 수녀 38(5)	23,870
원불교	11개	교당	19	15,000

(자료: 조승철, 제주의 종교 실태, 1987, 101)

## 2. 문제점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 외 제주 선교의 문제점으로 최근 10여년의 제주 종교인구의 변동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가톨릭교회와의 비교를 하면 그 문제가 더욱 뚜렷해진다.

<sup>114</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4.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로스(J. Ross)에 의해 한국 개신교 최초 세례자가 생긴 1879년으로부터 약 1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후 의료와 교육 등의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며 민족의 아픔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함께 겪어온 한국 개신교는 1960년대 이후 양적으로 놀랍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기부터 그 성장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0년대 와서는 교회의 성장률이 멈추었고, 2000년대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sup>115</sup>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 교단들인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기성 등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sup>116</sup>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성장 감소는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종교 대부분의 성장률은 감소를 하는데 개신교는 1985-1991년까지 650만에서 800만으로 약 23.8% 증가하였던 것이 1991-95년 사이 876만으로 9%만 성장해 결국 1985년에서 1991년까지 연평균 4%였던 개신교 성장은 1990년 들어 1999년까지는 연평균 -0.5%의 감소가 나타나고, 2003년 까지는 연평균 2.9%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마지막 2005년까지 2년간 연평균 -0.5%로 감소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sup>117</sup> 개신교의 성장은 지난 10년간 출생에 의한 국민 자연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종교의 성장에도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

<sup>115</sup>김해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sup>116</sup>이원규, "21세기 한국 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신학과 세계」 52 (2005년 봄호), 144.

<sup>117</sup>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적 제안," 「신학과 세계」 56 (2006년 여름호), 235.

조사인구는 4,728만 명으로 2000년(4,614만 명)에 비해 114만 명이 증가한 전체 2.5% 증가, 연평균 0.5%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지난 10년간 비교시 1995년 (4,461만 명)에 비하면 267만 명이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전체 6.0%, 연평균 0.6% 증가를 보였고, 같은 기간 동안 종교 인구는 고,373천명, 10.5%가 증가했다. 그런데 개신교는 지난 10년간 14만 4천명이 감소한 -1.6%의 성장을 보였다. 총 인구 성장에 따른 자연 성장만큼 개신교가 성장을 하였다면 10년간 늘어난 총인구 2,488천 명 중 18.3%인 적어도 약 44만 8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던가 아니면 10년간 인구 성장률 6.0%에 상응하는 526천명의 자연성장이 있어야 한다. 전체 종교인이 증가한 숫자가 10년간 2,373천명일 때 그중 18.3%가 약 434천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증가율, 종교 증가율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개신교의 성장이 확연해진다.<sup>118</sup>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에서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 교계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제주에 14개 본당과 약 27,000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에 개신교인(전 교파)은 약 200여개의 교회와 신자는 약 38,000명으로 개신교신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10년 후 2000년 통계에는 가톨릭교회가 22개 본당에 약 54,000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고, 같은 기간에 개신교회가 300여 교회에 42,000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다. 가톨릭교회는 단일교구 체를 실시하므로 비교적 통계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2007년 현재 그 차이는 더 벌어졌을 수 있다.

특히 개신교회가 교회 수는 100여 곳이 늘어난 반면, 신자 수

<sup>118</sup>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적 제언,” 「신학과 세계」 56 (2006년 여름호), 236-237.

는 4,000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성장은 없고 거의 수평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도약을 한 셈이고, 개신교회는 정체 내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개신교인 중 가톨릭교회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신교신자보다 가톨릭신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은 도 단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sup>119</sup>

세 번째로 낮은 복음화율, 증가율의 양적 감소에 더하여 기독교의 공신력 상실 역시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고, 한국사회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한국사회와 함께 하려는 모습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단체, 융통성이 없는 교회, 앞뒤가 꼭 막힌 교회, 외골수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고 있다.<sup>120</sup>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와의 비교에서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교, 교세확장 혈안, 헌금강조, 사랑안함, 종교규칙 엄격의 질문에서는 다른 종교보다 앞서가지만, 구제 봉사, 지도자 자질, 영적 문제 등에서는 여실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세상은 교회의 선교를 이기적 집단의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sup>121</sup>

한국 껄럽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대한 제 4

<sup>119</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4-15.

<sup>120</sup>김해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sup>121</sup>박창현, "선교 포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시 드러냄의 선교," 「신학과 세계」 59 (2007년 여름호), 195-196.

차 비교조사서에서 2004년 주요 종교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면 불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봉사/이웃사랑의 실천’(3.1%)과 ‘헌납 부담 및 강요’(3.0%)였으며, 그 다음이 ‘사리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2.0%),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1.4%), ‘종파간의 화합’(1.3%)등이 지적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봉사/이웃사랑 실천’(2.3%), ‘사리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1.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나친 교세 확장 및 권력 남용’(0.9%), ‘형식적 요소 탈피’(0.8%) 등이 지적되었다. 개신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봉사/이웃사랑 실천’(4.4%)과 ‘지나친 전도활동’(4.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헌납부담 및 강요’(3.0%),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2.7%), ‘사리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2.1%), ‘종파간의 화합’(2.0%) 등이 지적되었다.<sup>122</sup>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봉사/이웃사랑 실천’이다. 하지만 그 중에 ‘사회봉사/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건의 요청이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눈에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사회봉사/이웃사랑 실천’에 가장 등한시 하고 있고 반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집단의 확장만을 위해 지나친 전도활동에만 힘쓰는 종교로 비추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신교 내에서도 소위 보수적인 교파들(예를 들면,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침례교, 성결교)의 경우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23</sup> 즉 개신교인 가운데서 정통주의 교리를 잘

<sup>122</sup>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2004년).

믿는 교인일수록, 스스로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교인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일수록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과 나아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이른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sup>124</sup>

1970년대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론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 성장론의 성장제일주의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신학적 보수주의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인 배타성과 자기우월주의 의식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회갈등, 종교 갈등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가치, 이념이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자신들의 독특성과 동질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응력을 상실하고 자칫하면 계도화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sup>125</sup>

**<표 3> 한국 교회의 문제점**

문제점	개신교인	비종교인
양적팽창,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	25.5	26.0
교파가 너무 많다/단합이 안 된다	24.9	16.5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15.5	21.9
세속화/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	10.6	3.0
목회자의 사리사욕/이기심	7.5	13.1
이단 교회가 너무 많다	-	14.8

자료: 한미준, 한국갤럽,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2005)

실제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 개신교는 비종교인의 종교 선호도 혹은 호감도에서 지난 20년

<sup>123</sup>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126-131.

<sup>124</sup>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49-250.

<sup>125</sup>이원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49 (서울: 두란노서원, 1993), 48.

간 항상 최하위였다.<sup>126</sup> 2004년의 경우 비종교인에게 있어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불교(37.4%)였고, 다음은 천주교(17.0%)이며, 개신교(12.3%)가 마지막이었다.

한국 교회는 교회성장론이 중점적으로 여기는 성장제일주의로 인하여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수적인 증가에만 관심을 쏟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서 교회는 한국사회로부터 가장 호감이 없는 종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비종교인이 되거나 다른 교회로 수평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sup>127</sup>

상기한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난 게토화의 문제는, 비록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제주도 특유의 친족의식, 문화적 특성을 인한 배타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더 강하게 보여 지리라 생각된다.

하르트만(Hartman)은 교인이 교회 안에서 받아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교인이 그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제공하는 것(예를 들면 설교나 가르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너무 바쁘거나 여가를 추구할 때에 교회를 떠나기 쉽다고 지적한다.<sup>128</sup>

그리고 새비지(Savage)는 교인이 이탈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인은 먼저 교회에서 무관심과 지루함을

<sup>126</sup>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84, 1989, 1997, 2004).

<sup>127</sup> 김혜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sup>128</sup> Warren J. Hartman, Membership Trends: A Study of Decline and Growth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49-1975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76).

느끼며, 이어서 불편함(목회자, 교인, 가족과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다른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교회출석, 종교적 사고가 감소하게 된다. 여러 주일 후 교회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게 된다.<sup>129</sup> 로프(Rauff)는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로서 교회(신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다른 것들로 공백이 채워지며 교회 바깥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sup>130</sup> 즉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내적 원인은 교회가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신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31</sup> 제주도의 낮은 복음화율, 교회이탈, 공신력 상실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목회자 및 성도들은 구체적인 선교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교전략을 수립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sup>129</sup>John S. Savage, The Apathetic and Bored Church Member (Pittsford, N.Y.: Lead Consultants, 1976).

<sup>130</sup>Edward A. Rauff, Why people join in the Church? (New York: Pilgrim Press, 1979).

<sup>131</sup>이원규, “21세기 한국 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신학과 세계』 52 (2005년 봄호), 150.

## V. 제주도 선교의 전략 및 전망

### A. 문화변혁의 선교 전략과 전망

어느 지역에서나 선교는 지역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 제주선교에서 제주지역문화를 연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학이나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 등 인접학문과 부단히 접촉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동시대의 문화연구와 대응책은 여러 가지 실험적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짐이 중요하다.<sup>132</sup>

선교와 문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문화적 위임과 복음적 위임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으며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의 형태와 복음의 내용이 있게 되고, 피선교지로서 토착의 형태와 토착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양자가 만나게 될 때 피선교지에서 토착의 형태와 기독교 의미가 합하여 토착화(indigenization)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 형태와 토착적인 의미가 합하여 혼합주의(syncretism)가 된다.<sup>133</sup> 혼합주의는 흔히 잘못된 토착화에서 발생한다. 한국적 형식과 자료를 사용하지만 의미와 내용은 기독교적일 때 토착화라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sup>132</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62.

<sup>133</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기독교적인 형태를 사용하지만 의미와 내용이 한국적이라면 혼합주의가 된다. 따라서 토착화는 지향할 일이지만 혼합주의는 지양해야 한다.<sup>134</sup>

한국교회에 있어서 토착화 과정을 보면, 원래 종교성이 강하고 한국의 재래종교인 무속신앙에 뿌리박은 이들에게 과거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므로 새벽기도, 저녁기도, 심야기도로서 토착화된 것이며, 무당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빌어주듯이 구역심방을 통해 또는 여 권사나 여 전도사를 세워 방문하며 예배하도록 한 것도 토착화의 경우이다.

제사의 경우 우상숭배적인 요소는 제거하여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바꿔 임중(입관, 장례, 하관, 추도)예배로, 그 외에 주택에 관계된 가정의례에 관계된 부분들을 토착화한 형태로 백일, 돌, 회갑, 진갑, 기공, 준공, 입주예배 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sup>135</sup>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제주의 복음화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 즉 문화의 변혁에서 완결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매진해야 한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복음화라고 할 수는 없다. 제사문화와 권당문화와 뿌리 깊은 민간무속문화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가는 지혜와 용기를 격려하고 나누는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가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관혼상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제주 성도들이 핍박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제사를 기피하고 가문사람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목회적으로 잘 지도하고, 평소 집안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더

<sup>134</sup>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3), 258-263.

<sup>135</sup>*Ibid.*, 258-263.

라도 집안 제사에도 꼭 참석하고, 집안의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권당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권당관계의 중심에 서도록 화해와 섬김의 복음정신을 실천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격려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의 제주 토착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의 활용이 필요하겠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성도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성장세대에 대한 전도와 교육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개인과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문화를 바로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 특별활동 등을 교회가 선교의 장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의 역사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순수한 선교사로 자신을 인식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모든 선교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인 접근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 선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의식보다는 종의 의식을 가지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지의 교회나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형제로서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B. 이분법적 복음에서 통합적 복음전략

오늘날 세계 선교는 크게 두 진영의 연합체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CWME)로서 소위 에큐메니칼 선교를 대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1974년 로잔에서 결성된 로잔 세계복음화회의(Lausanne Committee on World Evangelism : LCWE)로서 소위 복음주의 선교를 대표하고 있다. 이 둘은 세계를 복음화 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선교신학과 전략의 차이로 인하여 온전한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는 다수의 보수교회들에 의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소수의 진보교회들에 의해서는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선교이해는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와 관련되어 미래의 선교전망은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복음화로서의 선교든 인간화로의 선교든, 지금과 같은 편향된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는 21세기의 선교적 성취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복음화와 인간화를 조화시키는 선교신학과 선교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서로가 대표자를 각각의 선교대회에 참관자로 파송하며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벽은 남아있다. 더구나 오늘날 기독교 선교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일치가 필요하다.<sup>136</sup>

복음주의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의 필요성과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침서인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권위를 최고로 여기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시

<sup>136</sup>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75.

되어야 한다는 개인 영혼 구원 중심의 선교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음주의의 장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되어주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랑하게 됨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잘 배워 그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이렇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살려는 노력은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흩어지는 교회(diaspora)와 흩어지는 구조(go-structure)<sup>137</sup>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세계의 역사와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인 변화들을 하나님의 활동의 나타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위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해방과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가 가진 장점은 무엇보다 사회와 동떨어지지 않는 감각을 가진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상황과 분리되어 개교회 중심의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사회와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돌보며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큐메니칼 선교가 가진 사회 복음화의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져있는 제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복음주의가 가진 개인 복음화의 관점이 함께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통전적 복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의 제주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복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전적 선교신학(Integrity of Mission)은 ‘기독교 선교에 성서적으로 온전한 접근을 하자는 열정적 주장이다’라고 사이더

<sup>137</sup>장성배, “총체적 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신학과 세계」 47 (2003년 여름호), 99.

(R.J.Sider)는 말하였다.<sup>138</sup>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활동이며, 그 중심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샬롬이다. 그 샬롬은 하나님-인간-자연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실현된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선교는 인간의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 구원(Holistic Salvation)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선교는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교회와 세계’를 잇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up>139</sup> 제주 초기 천주교 전래에 있어서 천주교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었다. 콘스탄틴적 배경에서 당시 교회의 힘을 가지고 제주선교를 하려 하다가 결국 신축성교난으로 크게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와 초기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주에서 구원을 이룬 것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아버지를 통한 아들과 성령의 선교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기풍 목사와 함께한 초기 개척자들의 선교모델은 하나님의 선교로서 21세기의 제주선교는 물론이고 세계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sup>140</sup>

따라서 현재의 제주선교는 과거 이기풍 목사의 선교정신을 모델로 사회 복음화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워져있는 제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복음주의가 가진 개인복음화의 관점이 함께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통전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sup>138</sup>Costas, Orlando E, 「통합적 선교신학」 서정운 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2), 11.

<sup>139</sup>김동선, "21세기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이해」 13 (호남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62.

<sup>140</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 C. 탈현실적 영성에서 조화적 실천영성

자유주의 신학진영에서의 선교신학은 민중신학이란 이름으로 제시되었는데, 민중 신학은 선교의 핵심을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신학은 복음 전도의 사명보다는 민중들의 인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지키는데 몰두한다. 민중 신학을 배경으로 한 선교신학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타문화권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사회, 정치, 인권 문제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다.

반면 전통 보수 진영에서는 선교를 문화적 명령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영혼 구원만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루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수적인 신학만을 고집한다면 심각한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도리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전통적인 선교방법(마 4:23-25)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전 인격적인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육신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sup>141</sup>

지금까지의 제주선교에 대한 반성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2</sup> 이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 뿐 아니라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단과 선교단체가 이 부분에 먼저 주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당대의 과제를 분명히 볼 수 있고, 합당

<sup>141</sup>남명철,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와 러시아 개혁주의 전통,”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9).

<sup>142</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제주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힘을 쏟았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는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봉사는 한국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중국에 의료선교사로 와있던 알렌(Horace N.Allen)은 헨더슨(Henderson)의 권유로 한국으로 임지를 바꾸어 1884년 9월 서울에 도착하여 미국 영사관 공의로 근무하면서 또한 영국, 청국, 일본 영사관의 공의로 봉사하였다. 1994년 갑신정변 때는 민영익의 부상을 치료하여 고쳐주었으며 이후 한국 일본 청국의 군사들이 충돌하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병원설립을 허락하여 광혜원이라 이름지어주었다. 만일 당시 선교사들의 의료봉사가 없었다면 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선교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초기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로서보다는 의료봉사와 신교육 개척자로서 환영을 받았다. 1885년 8월 아펜젤라(Henry Gerhart Appenzeller)는 그의 사택에서 학생 두 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고종황제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사액간판을 하사받았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립학교의 시작이 되었다.<sup>143</sup>

이후 스크랜톤(W.B.Scranton) 부인이 그의 사랑방에서 정부 고관 소실을 한명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여성교육은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장로교에서는 1886년 봄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정부 고아원 형식의 학교를 시작하여 1891년 이름을 예수교 학당으로 하였고 이후 1905년에는 경신학교로 바뀌었다.

<sup>143</sup>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0), 75-78.

이렇게 학교들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 학교의 경우 장로교 설립 학교 수가 605개교, 학생수가 14,708명, 감리교의 경우는 학교 수가 200개교, 학생수가 6,423명이었다.<sup>144</sup> 이렇듯 의료 또는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필침으로 고종황제를 비롯한 한국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좋은 관계는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병원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당시 제주선교 전략 없이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초기 개척자들 역시 학교나 병원선교보다는 교회중심의 선교만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기풍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조봉호는 제주인으로 이미 기독교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김재원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 예수를 믿고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역에 협력자가 되었다. 이는 교회를 통한 선교가 아니라 사회선교를 통한 결실인 것이다.

오늘날, 제주 선교는 사회봉사의 선교적 측면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선교적 토대를 구축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종의 간접선교인 셈이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제주에서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를 통한 선교, 노인복지와 노인대학을 위한 선교, 청소년을 위한 선교, 주부대학을 통한 문화선교, 문서선교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초 교파적으로 상담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그 외에도 군 선교, 교도소 선교, 경찰 선교, 연안 선교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sup>145</sup>

<sup>144</sup>이영현, 「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80), 75-78.

교회는 우선 그 지역의 사회봉사적 필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진단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훈련과 연수가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제주 선교를 위한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뚜렷한 목표와 전략 없이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선교의 문제와 과제를 명료하게 찾아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 선교대안을 계발하여 선교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과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 연구소의 설립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영성적 개혁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성적 개혁 없는 선교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영성은 지난 세기 망국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경제건설과 민주화운동을 통과하면서 형성된 ‘십자가 고난의 영성’, ‘축복의 영성’이다. 그러나 그 영성을 형성한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 영성의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해서 한국교회와 선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영성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침체와 무기력증은 이러한 영성의 고갈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제주에서는 이 영성의 고갈과 더불어 선교현장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46</sup>

그러므로 21세기 교회와 선교는 새로운 선교적인 지도력을 가

<sup>145</sup>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sup>146</sup>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51.

진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상 문화를 읽고 해석할 줄 알며, 융통성이 있으며, 인간관계가 좋고, 교제의 자질이 있는 진취적이며, 모험을 할 줄 알면서도 경건한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다.<sup>147</sup>



---

<sup>147</sup>남명철,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와 러시아 개혁주의 전통.”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9).

## VI. 결론

### A. 요약

지금까지 본 논문은 선교의 근본적 의미 고찰을 통해 제주 선교의 목표를 되새겨보고 제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제주선교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여 현재 제주도 선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제주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가 한국 교회 선교역사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게 하고자 제주선교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논자는 한국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주도 선교를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 가를 밝힌 다음 본 연구와 성격을 같이하는 선행 연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미 기독교계 전반에서 제주선교의 중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2008년으로 제주선교 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지난 제주선교역사를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선교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제 II장에서는 선교의 배경적 이해를 선교에 대한 성서적 해석과 선교의 역사적 이해, 그리고 현대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이요, 신약은 원심적”이며, 구약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약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관점과 의미를 주로 신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선교를 교부시

대, 동방교회, 중세로마가톨릭, 종교개혁시대, 계몽주의 이후시대로 살펴보고, 현대의 신학에서 두 개의 큰 그룹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보았던 선교의 배경적 이해를 토대로, 선교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므로 모든 선교의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따라서 제주 선교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결론지으며 II장을 마무리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제주도에 선교가 시작된 이후 제주도 선교의 변화상과 제주도 선교의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제주도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선교의 시작부터 이기풍선교사의 선교사역,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선교활동을 살펴보고,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맞으며 제주 선교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해외 선교지로서 제주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제주 선교의 역사는 한국 기독교역사와 맞물려 있다. 이기풍선교사가 독노회의 파송을 받아 1908년 제주도에 도착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는 몇 차례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교세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이성으로 인해 배타성이 강하며, 육지보다 선교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겪어왔다. 이러한 제주도에선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타 지역의 선교사역 및 배타성이 강한 타민족에의 선교사역에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 IV장에서는 제주도의 고유정서와 친족의식 및 민속신앙에 대해 파악하여 제주도 선교활동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현재 제주도의 선교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논문들에서 지적되었던 제주 특유의 권당문화, 친족의식 및 무속신앙이

외에도 제주 선교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낮은 복음화율, 제주 종교 인구의 수평이동, 그리고 기독교의 공신력 상실 및 기독교 내부의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목회자 및 성도들은 구체적인 선교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 V장에서는 앞장에서 파악한 제주도 선교의 배경 및 현황, 문제점을 토대로 21세기 제주도에서 성공적 선교를 이루어내기 위해 문화변혁의 선교 전략과 전망, 이분법적 복음에서 통합적 복음전략 그리고 탈현실적 영성에서 현실적 영성회복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 B. 제언

논자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복음화를 이루어 제주도가 기독교 선교의 전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변혁의 선교 전략, 이분법적 복음에서 통합적 복음전략, 그리고 탈현실적 영성에서 현실적 영성회복 전략을 살펴 보았다.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는 문화변혁의 선교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나 선교는 지역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 선교와 문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으며 그 문화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여 왔다.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제주의 복음화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 즉 문화의 변혁에서 완결되는 것이므로 제주 문화

와 기독교의 진정한 토착화를 이루고 혼합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제사문화와 권당문화 및 뿌리 깊은 민간무속문화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가는 지혜와 용기를 격려하고 나누는 장(場)을 만들어, 교회가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관혼상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제주 성도들이 문화적인 이유로 이웃이나 친척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목회적으로 잘 지도하고, 평소 집안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성장세대에 대한 전도와 교육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 특별활동 등을 교회가 선교의 장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의 역사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통전적 복음 전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선교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로 크게 두 진영의 연합체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가 가진 사회 복음화의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져있는 제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복음주의가 가진 개인복음화의 관점이 함께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통전적 복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의 제주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복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선교는 과거 이기풍 목사의 선교정신을 모델로 사회 복음화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워져있는 제주사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주의가 가진 개인복음화의 관점이 함께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통전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주선교에 대한 반성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 제일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제주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힘을 쏟았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제주 선교는 사회봉사의 선교적 측면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제주에서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청소년을 위한 선교, 지역사회 봉사,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선교적 토대를 구축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순수한 선교사로 자신을 인식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모든 선교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접근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 선교를 전개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지속함으로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제주사회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의식보다는 종의 의식을 가지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지의 교회나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형제로서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선교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요구되어지는 이때에 과거의 제주선교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제주문화에의 진정한 토착화를 이루고, 현실적인 사회봉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통합적 복음을 전파한다면 제주 선교의 미래는 밝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제주백년」 서울: 태광문화사, 1984.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제주선교.” 「기독교대백과사전」 13, 서울: 기독교문서1984.

김동선.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신학이해」 5, 1997년 9월.

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김동선. “21세기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이해」 13, 호남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김은수. “복음주의 선교와 신학적 과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1999.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김창기. “선교의 목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대학

원, 2007.

김해용.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남명철.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와 러시아 개혁주의 전통."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9.

박광철. "선교의 성서적 근거." 「미션월드」 7, 1991년 1월.

박민수. "제주선교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학기독교출판사, 1984.

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제주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 2008.

박인찬.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선교대학원, 2003.

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적 제

언.” 「신학과 세계」 56, 2006년 여름호.

박창현. “선교 포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시 드러냄의 선교.” 「신학과 세계」 59, 2007년 여름호.

변선환.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서울: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1977.

변승규. 「제주도약사」 신간사, 2004.

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석숙미. “21세기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선교 패러다임 -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신행철 등. 「제주사회론 2」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유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999.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3.

이원규. “21세기와 선교.” 「현대선교신학」 2, 서울: 전망사, 1994.

이원규. “21세기 한국 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신학과 세계」 52, 2005

년 봄호.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원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49, 서울: 두란노서원, 1993.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0.

장성배. “선교와 전도.”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장성배. “총체적 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신학과 세계」 47, 2003년 여름호.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87.

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3.

조종남. “로잔대회와 복음주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5,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84, 1989, 1997, 2004.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5.

황순환. 「선교와 문화」 서울: 담론사, 1998.

황순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Bavink, Herman J.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Bosch, J. David.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3.

Bosch, J. David.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0.

Bosch, J. David.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Costas, Orlando E. 「통합적 선교신학」 서정운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교육부, 1982.

Ridder, Richard R. Discipling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Glasser, Arthur F, McGavran, Donald A. 「현대선교신학」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Hartman, Warren J. Membership Trends: A Study of Decline and Growth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49-1975,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76.

Hedlund, E. Roger.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Leith, John 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Georgia: John Knox Press, 1981.

Muller, Karl. Sundermeier, Theo.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글방, 2003.

Noll, Mark A. "복음주의의 대두." 「목회와 신학」 194, 서울: 두란노서원, 2005.

Rauff, Edward A. Why people join in the Church?, New York: Pilgrim Press, 1979.

Rhodes, Harry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Seoul: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934.

Savage, John S. The Apathetic and Bored Church Member, Pittsford, N.Y.: Lead Consultants, 1976.

Stott, R. W. John. 「현대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Young, M. L. John. 「선교의 동기와 목적」 권달천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y and Prospect of Jeju Mission in 21st Century

GYUN-SOO KIM

*Department of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Chun-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g-June Hwang,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ticulate the importance of Jeju-Do mission and suggest a strategy and prospect of Jeju mission for 21st century. First, the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of current missionary work in Jeju-do by considering reg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historical meaning of Jeju mission, and ruminating the goal of Jeju mission through reviewing fundamental meaning of the mission. Next, it is presenting suitable strategies to Jeju mission so that Jeju can become the new centripetal point of mission history in Korea by overcoming the limit of Jeju mission.

Though the significance of Jeju mission has been already recognized in the whole Christianity,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on Jeju mission in Christianity. The attempt to make

turning point of Jeju mission based on rearrangement of mission history in Jeju is being performed actively from the 100th anniversary of Jeju mission in 2008. Since the mission is establishing the church, teaching the words, and following the words, ultimate object of the missionary work is to show the glory of God and accomplish the will of God. Therefore, ultimate object of Jeju mission is to show the glory of God and fulfill the will of God in Jeju.

Jeju island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the first oversea area of missionary work. And the history of Jeju mission is interlinked with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Since Rev. Gipoong Lee arrived as a missionary ordained from Presbytery in 1908, there had been several tough times in Jeju island. However, the congregation of Jeju-do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Moreover, the exclusiveness in Jeju is strong due to regional, historical, and cultural specificity unlike land. Missionary work in Jeju had more difficulty and constraint than a land.

Problems of current missionary work in Jeju include current low evangelization, horizontal move of religious people to other religions, loss of Christianity's public trust, and internal prejudice and resistance to other religions in Christianity other than peculiar culture of Jeju indicated in precedent studies such as Guendang (cousins) culture, relative consciousness, and so 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inisters and believers in Jeju should set up the concrete goal of mission and establish strategy of missionary work.

Jeju can be the outpost of mission for Christianity by expanding congregation of Jeju and it can accomplish the evangelization of residents in Jeju. Strategies of Jeju mission in 21st century include cultural revolution, unificational gospel from dichotomic gospel, and recovery of realistic spirituality. If problems of the past Jeju mission is accurately faced up and real naturalization of Christianity to Jeju culture for overcoming these problems, and unificational gospel is propagated through realistic community service, it is regarded that the future of mission in Jeju can be bright. Since problems of missionary work in Jeju are common problems of the whole Korean Christianity in general,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overcome the crisis of Korean Christianity as a reference. Moreover, in case that missionary work is successfully performed in Jeju, it can be a good example of missionary work for other national area and other race.

